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자

오는 6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발표 21돐이 되는 날이다.

1990년대 전반기에 들어 서면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해나서는 등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엄중히 위협해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에 의해 민족의 머리에 드리운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비범한 예지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제82(1993)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근 반세기동안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 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정령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 대단결총서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 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민족단합헌장으로 되었고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발표된 후 지난 기간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하고 통일행사들에서 북, 남, 해외 3자련대를 이룩하였으며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하는것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현시기 안팎의 반통일세

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있다. 미국은 대규모적인 북침핵전쟁 연습수동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머리에 열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그런가하면 내외분렬주의세력은 그 무슨 《핵문제》니, 《인권문제》니 하며 반공화국괴립 압살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대결책동,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위험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온 민족이 더욱 굳게 단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선을 분렬시킨 외세가 결코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을 선사해줄수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에게는 오히려 조선의 분렬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흥심만이 있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의 《개선》이요, 《신회》요 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민족의 단결된 투쟁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는 결정적힘이다.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투철한 주체적관점과 림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방해해나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철저히 짓부서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배주책행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변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말아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귀중히 여기며 그 고수리행을 위한 전민족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에 된라격을 안겨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의 고수리행을 위한 통일에국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랍치행위

오늘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남조선의 반통일대결세력중에서 제일 못되게 놀아대고있는것은 다름아닌 군부이다.

얼마전 감행된 공화국의 평화적어선과 선원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해적행위가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3월 27일 짙은 안개를 리용하여 조선선해의 해상군사분계선을 불법침입한 남조선해군 2함대 소속 강대들은 기관고장으로 닻을 내리고 방향을 판정하고있던 옹진군 산사면소의 어선과 선원들에 대한 야수적인 랍치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해군 강대들은 수십여발의 총란을 마구 쏘아대며 어선을 포위하고는 선원들에게 쇠팅을 휘두르고 쇠갈구리를 마구 집어던지면서 배를 랍치하기 위해 발광하였다. 그리고는 실신상태에 빠진 선원들을 쇠고랑으로 결박하여 백령도로 끌어갔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남조선해군강대들의

선원들에 대한 비렬하고도 강압적인 《귀순공작》책동이다.

바다에서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방조를 주어 돌려보내는것은 초보적인 인도주의원칙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관례이다.

그러나 남조선해군강대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공화국선원들에게 총구까지 겨누고 위협하고 서로 격리시켜 구라하고 위협공갈을 가하러 고창과 부모들, 공화국에 대한 배반을 강요하였다.

비렬성과 간악성, 비인간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남조선군부악당들의 《귀순》책동이야말로 극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군부는 철면피하게도 《유감스러운 행위》라느니, 《인도적으로 송환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해나서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해군악

당들의 강대행위의 후파로 선원들은 아직까지도 피멍과 머리에 지름줄을 비롯한 육체적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들은 이번 남조선해군의 공화국어선과 어민들에 대한 야만적랍치당동이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불순한 목적밑에 감행된 고의적이고도 계획적인 범죄책동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동족에 대한 남조선군부악당들의 구시대적인 대결의식과 적대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도 이룩할수 없다.

지금 공화국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군부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철 호

누워서 침뱉어야 제 얼굴에 떨어진다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남조선의 집권자가 도이쉴란드를 행각하였다. 행각기간 그는 여기저기 돌아치며 도이쉴란드통일에 대해 《배울것》이 많다느니, 《모범》을 따르고싶다느니 하며 체면도 없이 높아졌는가 하면 어느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한답시고 그 무슨 《통일구상》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것은 그가 《경제난》이니, 《배고픔》이니 하고 북의 현실을 외곡하며 임신부와 아이들에 대해 그 무슨 《도움》이나 줄듯이 생색을 낸것이다. 입 해론 아나네 주책머리없이 여기저기 싸다니며 주절때는 소리에 들을것이란 취물로 없다고 박근혜가 해외에서 늘어놓은 말들은 혐오감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한마디로 박근혜가 도이쉴란드행각시 보인 추한 행실은 그야말로 촌아나네의 꼴볼건이다.

우선 그의 이번 행각은 뼈속까지 사대로 물젖은 체질적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와 도이쉴란드는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다. 나라가 분렬된 경위도, 처한 현실도 같지 않다. 그런 도이쉴란드의 통일이 조선반도통일의 교본이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누

구나 일일천추 바라는것은 조국통일이다. 나라의 통일은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실현된다. 남조선의 집권자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고 구태여 서쪽의 머나먼 나라에까지 찾아가 그 무엇을 《배울》이니, 《모범》을 따르고싶다느니 하고 떠들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나의 강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북과 남, 지금은 비록 외세에 의해 돌로 갈라졌지만 앞으로 반드시 하나로 되어 함께 살게 될 북과 남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합의한 모 든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그 누구의 《모범》을 운운한것은 제 민족이 한것은 모두 나쁘고 남이 한것은 무조건 좋고 그대로 해야 한다는 사대의 극치이며 엄중하게는 온 겨레가 규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고집하는 반통일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그가 도이쉴란드의 동부지역들을 돌아치며 이 지역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통일의 원동력이였다는니 뭐니 하고 지껄어댄것은 그 말 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경제난》이니, 유치원과 평양산원을 돌아보면서 아

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녀성들을 존중하는 공화국의 제도에 대해 머리를 끄떡이며 인정한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닌 보살하며 임신부와 아이들을 생각이나 해주는것처럼 높아졌것은 가스름기 그지없다.

지금 너자라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우고 남자들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날미에 끝 《해고통지장》을 받는 날이 되고 있는 암울한 사회는 남조선이다. 박근혜가 임신부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의 일에 기우겨리기보다는 제 집일이나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세상에 모르면서도 아는데 하는것이 이상 창피한 노릇은 없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보원이 조작한 모략정보를 그대로 외위대는 박근혜야말로 2MB라는 별명이 붙은 리명박이나 무식하기로 소문난 부리와 한치도 다름바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고 해외에까지 나가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린 남조선집권자는 이제 세 살 난 아이처럼 재잘거리지 말고 인생말년을 앞둔 나이에 맞게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김 응 철

박근혜의 제안은 남북사이의 불신만 고조시킨다

남 조선 의 학 자 가 비 난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3월 30일 남조선집권자의 반통일망언을 비난하는 학자 고승우의 글을 실었다.

글은 박근혜가 도이쉴란드행각기간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한 3대제안》이라는것을 내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인도적문제해결》, 《인생기반구축》, 《남북주민간 동질성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3대제안》은 빈발뿐이며 실망스럽게 그지없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이 이미 7.4공

동성명, 6.15공동선언 등을 통해 통일의 대원칙에 대해 합의하여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지만 박근혜는 그에 대해 침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리명박 《정부》와 같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리행을 외면하고 미국과 함께 북에 대한 압박 및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그 누구의 《금번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로골적으로 실시하여 북의 반발을 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박근혜가 집권후 《5.24조치》를 계속 고집하면서 남북교류협력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남북관계개선에서 지치지 않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렇게 놓고볼 때 박근혜의 이번 제안이라는것은 오히려 남북사이의 불신만 고조시킬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글은 《통일의 청사진은 이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등에 다 밝혀져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역겨운 추태에 격분을 금치 못한다

벌써 로망중세가 보인다

박근혜가 뭐 공화국의 산모와 유아들에게 《영양지원》을 하겠다고?

참 사람 웃긴다. 내가 알고있기엔 남조선에서는 인류의 축복으로 되어야 할 임신과 해산이 곧 해고로 이어지는 불행이 되고 면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만연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 때문에 유아들의 무상보육도 실현되지 못한다고 한다.

제 집안일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서 누를 《격정》한다니 부투매질 못하는 아나네 이마털만 뽑는다는 격이다.

무식하고 체신머리없는 녀자

이번에 박근혜가 도이쉴란드에 가서 는 꼴을 보니 정말 눈이 딱 감긴다.

어쩌면 그렇게도 머리에 든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면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나 상식정도가 가지고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뒤뚱박에 앉아 인간스레기들이 쉼튼 악담을 그대로 섬겨버린 정보원것들의 각본을 그대로 외워대나나니 아직도 격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은 《친정집》이라 부르는 여기 평양산원을 비롯한 훌륭한 병원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 최고의 혜택을 받으며 아이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보배들로 키우고있다.

아이를 낳아보지도, 길러보지도 못한 박근혜가 누구를 생각해주다는 앞은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제 인기를 울려보자는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공화국의 현실도 모르면서 체신머리없는 녀자에 내가 수다를 떠는것을 봐도 벌써 로망중세가 있는 모양이다.

평양산원리과장 김 영 애

다는 차분히 머리를 식히고 상대인 북을 바로 알고 리해하는 눈부터 띄워야 할것

먹은 나이가 아깝다

박근혜가 해외에 나가 우리를 혈투다 못해 가스름게도 공화국의 임신부와 아이들을 생각하는것 하면서 그 무슨 《산모와 유아영양지원》이니 뭐니 했다는데 그야말로 불을 꼬집어주고 쏘여주는 격이다.

그래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과 아이들이 혈벗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있다는 소리인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남쪽사회에서는 녀성들이 학대와 폭행, 수모와 멸시속에 삶에 대한 희망과 포부마저 포기하고 비판과 질망에 빠져 죽음의 길을 택하고있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권리마저 누릴수 없는것이 바로 녀성천시, 녀성멸시의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이다.

하지만 녀성존중, 녀성사랑의 화원인 우리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시대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국가의 혜택속에 충분한 산전산후휴가가 보장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춘 산원과 탁아소가, 유치원들이 가는 곳마다 있어 우리 녀성들은 아무런

이다.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부원 강 철 문

세 상 을 웃 기 네

박근혜가 도이쉴란드에서 평창한 《통일방안》을 방송했다기에 들어보았더니 너무도 기가 막혀 말을 할수 없다.

아마 싸구려장사군의 손길 계획도 박근혜의 그 잘난 《방안》이라는것보다 나을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데 지나가던 개도 웃을 여러 광대사실질만 늘어놓는 박근혜가 정치를 한답시고 일질하며 돌아치고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

머리속에 든것도 없고 초보적인 정세판단도 시골아나네보다 할줄 모르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이니 달리는 뿔수가 없다고 본다.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이 《박근혜가 세상을 바꾸네》라는 구호를 내놓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 소리에 맞추어 연자방아를 돌리는 하늘소도 폭소를 터칠 희떠운 소리만 채치는 박근혜에게 한마디 하

고싶다.

《박근혜가 정말 세상을 웃기네.》

하는것처럼 너스레를 떨었으니 그야말로 들판에 매어놓은 암소도 웃다 꾸레미리질 노릇이다.

나이 60에 칠든다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의 먹은 나이가 아깝다.

옛적부터 녀자는 제 마당천리를 돌아야 집살림이 반짝반짝해진다고 한다. 마을돌이천리를 해봐야 주먹질밖에 더 차례질것이 없다.

현실을 바로 볼줄 모르고 머리에 든것이 없는 박근혜가 해외를 돌아치며 동족대결의 가벼운 혀차마를 뽐내야 차례질것은 자기 망신밖에 없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 윤 선 의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사 신 기 호



◁ 똑 같은 미시리들 ▷